



KOBA 2019 카메라 및 영상장비 Review

글. 나종광 OBS 촬영감독

KOBA는 많은 방송인과 예비 방송인들에게 매년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마력이 있는 전시회이다. 올해는 새로운 카메라나 장비들이 특별히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본인에게는 8K 카메라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소니의 8K EFP 카메라인 UHC-8300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소니 카메라에 대한 인터뷰는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방송장비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열렸기 때문에 많은 분께는 도움이 되셨을 것이고, 직접 장비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번 KOBA 2019에는 좀 더 창의적인 장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본인에게도 뜻깊고 즐거운 기간이었다.

장비는 계속 발전한다



KOBA
2019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출시되던 카메라들이 어느 순간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발표만 계속되는 동안 렌즈나 그 외의 주변 장비들의 출시가 많이 늘어나고, 수입 선이 애매했던 장비들도 다시 출시 준비를 하는 등 이번 KOBA 2019에서의 카메라 장비 쪽 불거리는 나뭇잎 많았고, 방송 환경이나 제작 환경의 변화가 조금씩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이 공감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좀 더 자세히 필자의 개인 취향에 맞는 장비들을 살펴보고도록 하겠다.

배터리

카메라 주변기기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와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배터리는 카메라나 모니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과 관련해 항공규약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라서 작은 용량이지만 오래 사용이 가능한, 용량보다는 효율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DX의 경우 V 마운트를 사용해 배터리끼리 연결할 수가 있고, 뒤에서부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전원을 끄지 않고도 계속 배터리를 교환하면서 장시간 촬영이 가능해 타임랩스를 장시간 촬영하는 경우에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국내 조명회사인 알라딘에서도 V 마운트용 배터리를 수입하고 있는데, 아직은 생소한 상표이지만 작고 획기적인 배터리를 선보이고 있었는데, 작지만 여러 가지 장비에 활용도가 높은 FXLION은 알라딘 조명과 함께 사용한다면 야외에서도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통해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FXLION NANO ONE 배터리의 스펙은 아래와 같고, 출력 단자도 풍부하기에 어떤 장비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여러 업체의 배터리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NANO V-lock Battery

정전 용량 : 50Wh

D-tap Output : 14.8V

USB A Output : 5V/2.4A, 9V/2A, 12V/1.5A

USB C Output/Input : 5V/2.4A, 9V/2A,
12V/2A, 15V/2A,
15V/2A, 20V/2.2A

Micro USB Input : 5V/3A



렌즈

렌즈는 고가의 ARRI의 Signature Prime 렌즈나 ZEISS의 Supreme Prime 렌즈부터 국내의 irix 렌즈에서 시네 렌즈를 처음으로 전시하고, LAOWA의 시네 렌즈와 이노비전 렌즈가 전시되었다.



캐논과 후지논도 4K를 넘어 8K 렌즈들도 같이 전시를 했는데, 후지논은 이케가미에, 캐논은 소니 8K 카메라에 각각 장착되어 전시되었다.



캐논은 중계용 망원 렌즈를 전시하고 있었고, 2020년 동경올림픽을 대비한 제품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후지논도 방송용 줌 렌즈들과 함께 소형 카메라용 MK 렌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가 과거에는 몇 가지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라지 포맷부터 풀 프레임, 슈퍼 35mm, 마이크로 포서즈 등 너무도 많은 사이즈의 카메라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아마도 기술의 발전을 만드는 것 이외에 렌즈회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수요가 늘어난 컨슈머 시장도 잘 챙겨야 하고, 수요는 줄었지만,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줘야 하는 프로슈머 시장도 잘 챙겨야 해서 그 두 곳의 밸런스를 조화롭게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가격적으로는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중국 렌즈회사들의 약진을 경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특히 국내기업인 irix 렌즈의 경우에는 KOBIA 2019에서 최초로 시네마 렌즈를 11mm 와이드렌즈와 150mm 마크로 렌즈 2종류를 선보였는데, 국내기업이라서 당연한 일이라는 하지만 해외가 아닌 국내의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주요 부스의 영상장비

세기P&C는 세타와 같은 VR 카메라와 VR용 트라이포드 등을 전시했는데 360도 카메라가 새롭게 주목받게 되어서 인지 많은 내원객의 관심을 받았다. 또 ARRI나 베니스 카메라와 같이 라지포맷과 풀프레임 카메라를 지원하는 짜이즈 렌즈와 시그마 렌즈들을 함께 전시했는데 지금까지의 세기 P&C 부스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흥미로웠다.



그리고 한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Syrp 사의 genie 2와 같은 타임랩스 장비도 같이 전시를 했는데 그린촬영시스템의 에델크론 제품도 기술적으로 서로 비슷한 성능과 기술로 가격도 기존의 고가 장비들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서 좀 더 많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촬영하는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미래에는 HDR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압축률이 적은 영상포맷을 선택해야 하고 그러하다 보면 파일을 현장에서 백업받아야 하는데 국내기업인 넥스트디아에서는 가볍고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지원하는 초경량, 초고속 현장백업 장치 NPS-10을 발표하였고 제품을 전시하였다.



후반 작업을 위한 씨게이트의 장비들도 전시되었는데, 화질이 좋아지면서 파일의 크기도 커져서 현장 백업뿐만 아니라 아카이빙을 위한 스토리지와 편집을 하기 위한 스토리지 등 후반에서 마음 놓고 고화질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캐논을 비롯해서 유쾌한 생각, 그리고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힘입어 거기에 맞는 장비들도 많이 전시되었다.



유쾌한 생각 부스의 크리에이터 룸은 전문 녹음실을 집에 옮겨 놓은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방음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보였다.



ASMR을 비롯해서 음악 연습, 음악 방송도 가능한 1인 방송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으로 보였고, 코딕에서 제작한 부스 역시 1인 방송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다.



베스코에스아이에서는 아토모스 부스를 통해 여러 카메라의 HLG 촬영과 로그 촬영, 그리고 아토모스를 통한 고화질 녹화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고, 좀 더 넓은 색공간과 계조 표현을 위한 장비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파나소닉 부스는 방송용과 시네마용 카메라도 전시하고 있었지만 많은 부분을 최근에 출시한 풀 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 루믹스 S1R과 S1, GH5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원고를 쓰고 중에 시네 기어 엑스포 2019에서 파나소닉에서 L 마운트용 시네 루믹스 카메라를 5월 31일에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마도 또한 파나소닉을 주목하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랙매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부스 내에서 하고 있었고 8K 시스템을 NAB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서 곧 8K 카메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NAB에서 발표된 샤프의 8K 카메라 '8C-B30A'가 블랙매직 포켓 4K 카메라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아무쪼록 블랙매직이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카메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또 다른 혁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히타치는 그동안의 수입업체를 바꿔서 출전하였는데, 이번에는 8K 카메라를 전시하지 않아서 아쉽긴 했지만 계속 한국 시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고일에서는 BOLT CineBot을 현장에서 시연하고 있었는데, 많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용도에 따라서 그 성능의 무한함에 앞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일은 그밖에도 대형 장비들과 LIVE U와 같은 장비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4K 60p까지 지원하는 AIDA의 시스템 카메라도 한쪽에 전시되고 있었는데, 생소한 카메라와 시스템에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아이티원에서는 수중 드론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시연장에서는 직접 수중드론을 조정해 볼 수 있었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관람객들의 관심이 컸던 부스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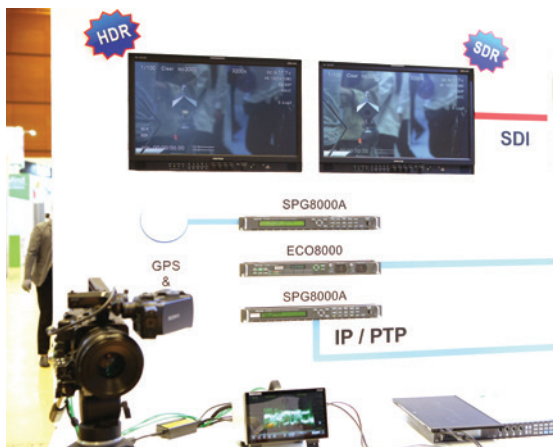
Grass Valley의 카메라와 mo-sys 시스템을 사용한 재인엠앤씨의 버추얼 스튜디오와 삼아의 시스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 밖에도 MOZA의 짐벌이나 새로운 장비들과 동영상 무선 송수신기들이 본인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동영상 무선 송수신기의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촬영감독과 연출자와의 소통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SDI나 HDMI 라인을 사용해 장소를 옮기거나 카메라 앵글을 바꿀 때마다 라인을 매번 다시 깔고 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카메라 스탭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Tektronix의 HDR 관련 계측장비들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윤택의 짐벌들도 이제는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어 서인진 관심을 갖고 직접 시연해보는 분들도 많았고, 외국의 촬영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게 있었으면 했던 개퍼용 테이프도 전시하고 판매하는 모습도 새로웠다.



모션9의 부스에는 촬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드 트럭이 전시되어 있었고, 포비디지털 부스에서는 직접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장비들을 이제는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 행복할 뿐이다.



소니코리아

소니코리아는 이번 KOBA 2019 전시회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엔지니어가 직접 참석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번 인터뷰는 이번 KOBA 2019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시하는 8K 시스템 카메라 'UHC-8300'과 소니 VENICE 시네알타 카메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들을 수 있었고, 프로용 팜 사이즈 카메라인 'HXR-MC88'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에는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 동은주, 정진영 씨가 수고해주셨고, 베니스에 대해서는 김병철 씨가 인터뷰해 주었다.



소니 8K 시스템 카메라 'UHC-8300'에 대해서
설명한 나카코 요시노리 씨



소니 'HXR-MC88'에 대해 설명한
아노 세이야 씨



소니 베니스에 대해서 설명한 김병철 씨

가장 관심이 가는 소니 8K 시스템 카메라 UHC-8300은 세계 최초로 1.25인치 8K CMOS 센서 3개를 탑재한 솔더 타입의 EFP 카메라보다는 좀 더 크고, 박스형 스탠다드 카메라보다는 조금 작은, 일종의 중계용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UHC-8300은 부스에서 시연도 가능했는데, 이 카메라가 세계 최초의 1.25인치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이 카메라에 맞는 렌즈가 캐논과 후지논에서 각각 한 종류씩만 출시된 상태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좀 더 많은 렌즈가 출시될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현장에서 만약 8K를 도입한다면 당장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되는 부분

이 있었다.

KOBA 2019에는 소니 UHCU-8300에 캐논의 1.25인치용 8K 렌즈가 장착되어 실제로 작동해 볼 수 있었다. 또 기존의 2/3인치용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도 캐논과 후지논에서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한다.



소니 UHCU-8300은 8K 제작뿐만 아니라 8K, 4K 및 HD의 동시 출력이 가능해서 각각의 해상도의 소스를 현장에서 바로 송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UHCU-8300을 통해 8K 120fps 영상 신호 출력(12G-SDI out x8)과 12G/3G-SDI 출력으로 4K/HD 동시 출력도 가능하며, 실시간 4K 컷아웃도 지원한다.

이번 전시에는 8K 모니터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4K 모니터를 통해 이 카메라의 해상도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4K로 확대해서 포커스를 볼 수 있는 기능도 KOBA 2019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는데, 동영상의 해상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카메라에 장착된 모니터는 아직 최고 해상도가 Full HD이고, 앵글을 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영상을 확대해서 포커스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에 장착된 모니터로 포커스 확인을 못 했어도 중계차에서 좀 더 인치수가 큰 4K 모니터로 포커스를 확인하여 원격으로 포커스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니 UHCU-8300은 S-Log3, HLG Live, HLG BT.2100를 모두 지원하여 8K, 4K, HD, HDR, SDR 모두 제작이 가능하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2, 3'편을 소니 시네알타 카메라 VENICE로 촬영하면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카메라 연장시스템 'CBK-3610XS'도 이번 KOBA 2019에 전시가 되었다.

5.5m 케이블로 연장되는 VENICE 센서 블록은 무게가 1.4kg 밖에 나가지 않아 보다 손쉽게 짐벌과 리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니 아주 가볍지만은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도 현장에서의 운영은 훨씬 편해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6K 60fps까지 촬영이 가능한 베니스에 대한 기대는 "과연 8K를 지원하는 후속 모델이 발표될 것인가"

가?”라는 부분과 좀 더 작은 베니스 미니(?)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지만 아직 8K에 대한 소니의 의지가 크지 않고, 그동안 업무용 카메라 시장을 선도해나가면서 소니만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8K보다는 4K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선도해 나갔던 혁신의 소니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자리였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기존 장비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FS7에 ENG용 B4 마운트 렌즈를 장착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CBK-FS7BK’ 키트나 1인치 센서를 사용한 폼사이즈의 Full HD 카메라 ‘HXR-MC88’은 어찌 보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발상 같기도 하다. 이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불리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분명 포커스 인식이나 12배의 광학 줌, 4단계의 ND 필터, 마이크 단자의 확장성 등 현존하는 소니의 모든 최신기술이 집대성된 카메라일 것은 분명하고, 현재에도 업무용 소형 Full HD 카메라가 필요한 유저들이 정말 좋은 가격에 소니 HXR-MC88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방송업계, 특히 지상파방송의 상황은 아직 4K로 진입하는 것조차 힘들어 수도 있다. 4K, HDR, 8K 모두 현재는 완성되지 않은 기술처럼 멀리 보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카메라와 장비를 찾는 것이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장비 전시회이고, 그 전시회의 꽃이 KOB.A 쇼이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정보의 장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방송인들과 예비 방송인들을 위한 전시회로 굳건하게 계속 있어 주기를 바란다. 📺